

Tech팀

이종욱 팀장

jwstar.lee@samsung.com

문준호 Senior Analyst

joonho.moon@samsung.com

서지현 Analyst

jihyeon.seo@samsung.com

정승호 Research Associate

seungho1.jeong@samsung.com

김경빈 Research Associate

kyoungbeen.kim@samsung.com

금융/소비재팀

박세웅 Analyst

sewoong.park@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Tech (OVERWEIGHT)

투자 속도는 수요의 증거

- 메모리 투자 속도와 규모 모두 상향 조정, 50% 빠른 투자 속도로도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
- 소부장 이익 가시성 연장, 장비주에 주목. SK Inc와 로봇 섹터의 수혜.

WHAT'S THE STORY?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3,550 조원의 투자 발표: 6월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행사를 통해,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약 2,450 조원 (반도체 약 2,100조원)의 투자를, SK하이닉스는 약 1,100 조원의 중장기 투자를 발표하였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팹택(신규 fab 2기+ 기존 fab 잔여분)과 용인(fab 6기)에 1,650조원, 천안과 온양(HBM 등 후공정)에 56조원, 서남권(광주 fab 2기) 400 조원을 투자한다. SK하이닉스는 용인(fab 4기) 600 조원, 청주(fab 1기) 100 조원, 서남권(fab 2기) 400 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속도 증가에 초점: 가장 중요한 변화는 투자 속도다. 클린룸에 장비를 채우는 속도가 당초 계획에 비해 50% 빨라졌다. 삼성전자의 용인 클러스터는 6개의 fab 클린룸을 모두 채우는데 18년에서 12년으로,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4개의 fab 클린룸을 모두 채우는데 12년에서 8년으로 단축시키는 계획이다. 둘 다 비슷하게 1년에 3개의 클린룸(2년에 1개 fab)을 10년 내외 채우는 속도이다. 삼성이 1/3을 파운드리와 낸드에 할당한다고 볼때 삼성전자는 연평균 8%, SK하이닉스는 연평균 14%의 디램 웨이퍼 증설 속도를 계획하고 있는 셈이다. 당사가 28년까지 3년 평균 웨이퍼 증설 속도를 연평균 12%로 보고 있다는 것까지 반영하면, 현재 투자 강도는 기존 장기 계획대비 50% 빠른 속도이며, 변경된 장기 계획은 현재 투자 강도를 10년 내외 지속한다는 가정이다. HBM이 촉발하는 wafer penalty를 생각한다면 전혀 높은 수준이 아니다.

메모리 공급 위기감: 당사는 투자 강도 증가의 배경에는 메모리 공급 위기감이 있다고 해석한다. 이를 단순히 정부 정책 대응 차원의 계획으로 보는 것은 부족하다. 2~3년간 3~5%의 쇼티지로 메모리 사이클을 누렸으면 장사를 잘 했다고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40%의 쇼티지가 생겼다면 공급 계획이 옳았다고 볼 수 없다. 대규모 쇼티지가 장기화되면 수요의 대체 기술 연구를 자극해서 메모리의 잠재 시장(TAM)을 잃어버릴 수 있다. 심지어는 메모리 부족으로 수요가 꺾일 수도 있다. 이미 스마트폰과 PC에서 디램은 TAM을 잃고 있는 중이다. 메모리 부족으로 Agent AI의 성능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아 AI의 개화가 늦어지는 것을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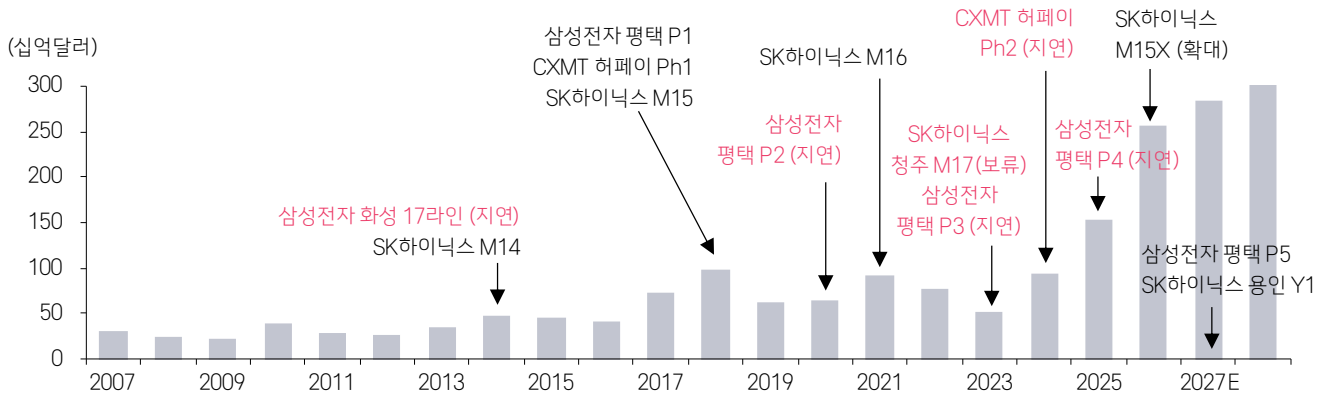
투자 속도는 현재의 쇼티지 강도를 증명: 이번 투자는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스스로 현재 메모리가 심각한 쇼티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건이다. 메모리 업체들은 크고 강한 수요를 보았지만,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최소한 신규 fab의 의미 있는 증설이 나타나는 27년까지 쇼티지가 풀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 업체들은 향후 5년간 최소 2배, 10년간 3배의 클린룸 확대를 계획했다. 하지만 여전히 향후 5년간 3배의 디램이 필요한 AI 클라우드 고객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당사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뿐 아니라 해외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캐파 확장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메모리 주가 측면에서는 Fab 완공 시기가 더 중요: 한편 서남권 클러스터 발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옛 사례를 보면, 고덕, 용인 남사읍, 원삼면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표, 혹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는 주가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클러스터 발표 자체가 당장의 공급 변화와는 무관하고, 인프라 투자 특성상 완공 시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비 투자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Fab 완공 시기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메모리 양사에게 용인 이후의 새로운 클러스터 부지가 필요한 순간이었고, 반도체 생산 부지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서남권으로 반도체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신주 시에서 시작된 TSMC는 이제 타이난과 가오슝에 이르기까지 대만 전역으로 Fab이 확장되고 있다. AI 시대의 메모리 위상에는 더 넓은 생산 권역이 필요하다.

전력이 병목: 가장 큰 병목은 전력이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의 투자는 크게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전력을 크게 소비하는 사업들이다. 현재의 확장된 계획에 따르면 당장 31년부터 전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5년 밖에 남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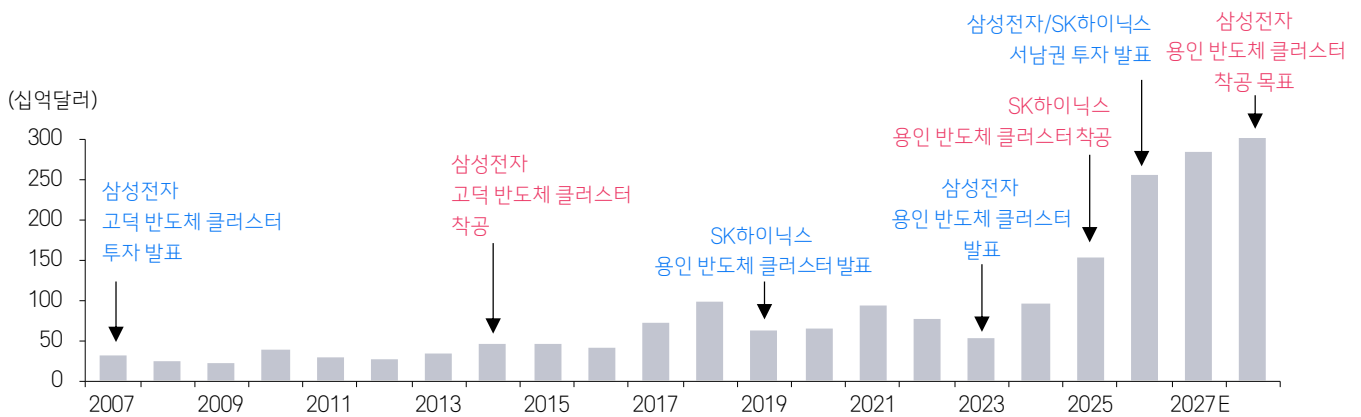
반도체 소부장 - 선제적 capa 확보, 장비에 주목: 마침내 2028년 (P5와 Y1) 이후로도 소부장 업체들의 이익 가시성이 연장된 셈이며,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부장 전반의 이익 전망이 한 번 더 상향될 수 있는 긍정적 소식이나, 당사는 장비주에 주목한다. 소재, 부품은 가동률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나, 선제적 capa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만큼, 장비에 우선 투자하는 전통적인 CAPEX cycle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인프라 성격의 에스티아이(Not rated)와 한양이엔지(Not rated), 전공정 장비주인 테스, 원익IPS, 유진테크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글로벌 top 장비사들도 이번 모멘텀을 함께 향유할 것으로 생각한다.

디램 매출액 vs 주요 Fab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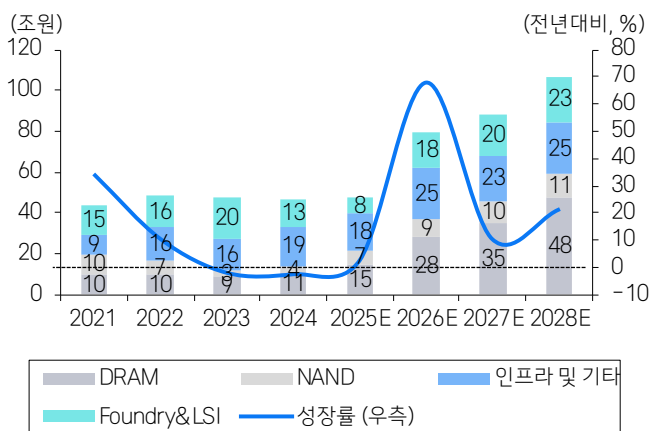
자료: WSTS, 삼성증권

디램 매출액 vs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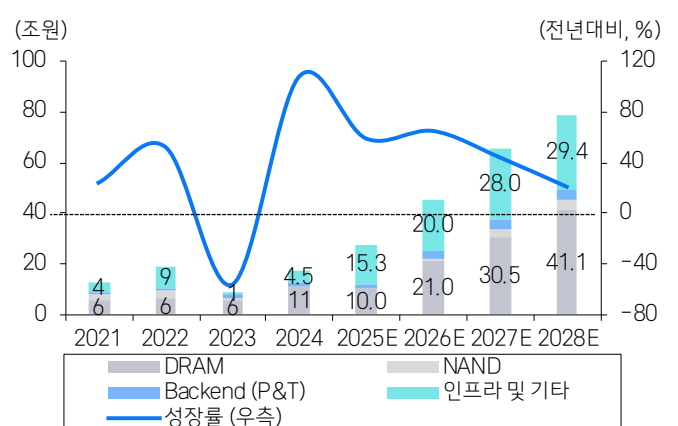
자료: WSTS, 삼성증권

삼성전자: Capex (반도체) 추이



자료: 삼성전자, 삼성증권 추정

SK하이닉스: Capex 추이



자료: SK하이닉스, 삼성증권 추정

3M 전략을 통한 AI로봇 압축 성장: 정부는 '로봇 잘 쓰는 나라'에서 '잘 만드는 나라'로 전환해 외산 의존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한국 회사의 점유율은 1%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를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3M(M.AX, Master, Mass production)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지컬시를 대체 불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대한민국은 1) 강력한 제조 인프라와 2) 세계적 AI 역량을 갖춰 피지컬시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향후 3년이 골든 타임이기에 2030년까지 피지컬시 글로벌 1강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은 아래와 같다.

로봇 섹터 투자 아이디어: 이번 메가프로젝트 보고회는 로봇 섹터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데이터 수집/교육/연구용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요 구조 속에서 정부가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로봇을 적극 구매하는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구체적인 국내 기업 투자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3대 취약 부품의 기술적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이다. 중/대형 부품보다는 로봇티즈와 같이 초소형 부품을 집중 개발하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두번째는 자체적인 데이터 프라이프라인을 통해 모델 학습에 적합한 양질의 합성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번 발표회에서 정부는 실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월드모델을 활용한 합성 데이터 생산 체계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3M 전략을 통한 AI 로봇 압축성장

	상세 내용
M.AX	주력 제조업과 로봇 산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제조업 AI 전환(M.AX) 가속화 → 업종 특화 로봇을 개발하고, 매년 1천대 이상 현장에 보급할 예정 → 제조업에 로봇을 도입해 제조업 생산성을 글로벌 1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Master	AI, 부품 등 핵심 요소 기술의 경쟁력 ①데이터, ②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③3대(액추에이터, 로봇손, 센서) 취약 부품 확보 → 로봇 전문인력 1만명 양성(전문 기업 30개 이상 육성 목표) 중국과 유사하게 양산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신속히 구축
Mass production	→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 대경관에 소재한 자동차, 가전 부품기업들이 로봇 부품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지원 →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교육, 국방 등을 위한 로봇을 선제 구매할 계획

자료: 산업통상부, 삼성증권 정리

피지컬시를 대체 불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상세 내용
총력적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물리법칙과 동작이 세심하게 결합된 데이터는 피지컬시 학습에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구하기 어려움 → 월드모델을 활용한 대규모 합성데이터 생산 체계에 집중 투자하고,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할 것
독자 피지컬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향후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피지컬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할 계획 → 월드모델 기반의 범용 모델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특화 모델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할 계획
피지컬시의 대규모 실증	산학연 결집 통한 연구개발 바탕으로 국내 독자 기술로 구성된 피지컬시의 대규모 실증(농업, 가정 등)을 과감하게 지원 → 국산 피지컬시의 서비스 완성도 향상과 상용화를 촉진, 피지컬 시 플랫폼 플랫폼(디바이스, 모델, 보안 등)과 서비스의 수출을 도모

자료: 산업통상부,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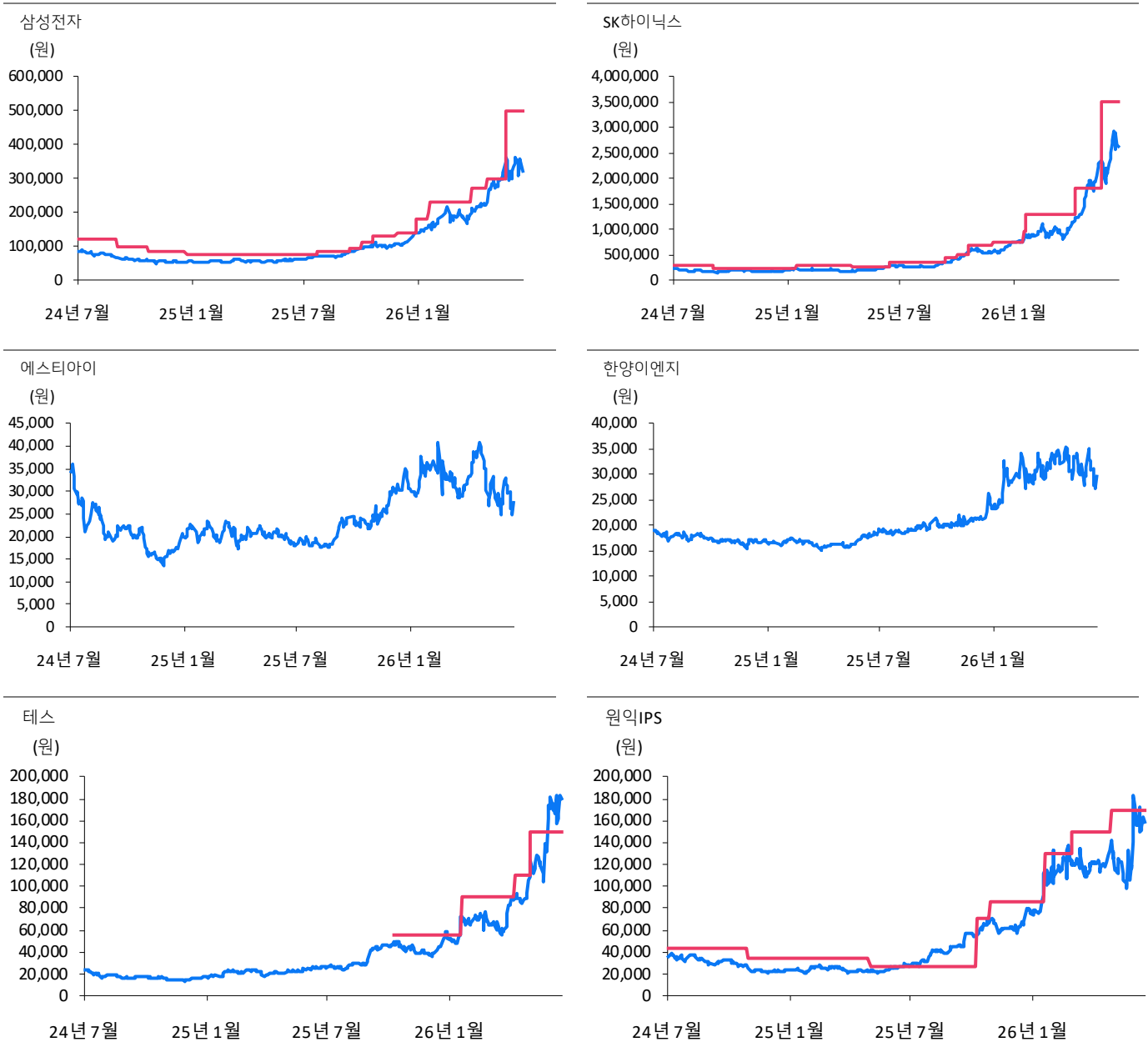
SK Inc, 메가 프로젝트의 선제적·장기적 수혜 기대

- 금번 메가 프로젝트 관련 수혜 종목으로 SK에 관심을 권고한다. 2030년 이후까지 연간 1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신규 팹/클러스터/DC 착공과 이를 위한 인프라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투자 수혜를 향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반도체 분야에선 자회사를 통한 대규모 수주가 기대된다. SK는 자회사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신규 팹/클러스터 건설 시 EPC 사업자로서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용수 처리 등 인프라 구축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실제로, 해당 자회사는 '24~'26년에 걸친 용인 클러스터 및 팹 건설을 위한 총 31조원 투자 과정에서 약 6조원을 수주한 바 있다. 금번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분야 투자 규모가 약 1,100조원이며, 초기 투자가 팹 시공/인프라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감안 시, 선제적으로 대규모 수주 및 이익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 추가적으로, AI DC 분야에서도 별도 사업 부문(SK AX)과 위 언급한 자회사를 통한 대형 수주 가능성이 존재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SK 그룹은 1차적으로 총 5GW 규모의 DC를 구축하고, 이후 10GW 규모의 DC를 추가 구축하는 데에 1,0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5년 울산 AI DC (0.1GW 규모) 건설에 약 7조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MEP 및 EPC 사업자로 참여함으로써 약 4,000억원 이상을 수주한 레퍼런스가 있다. 선제적으로 투자가 집행될 5GW 규모 데이터센터 만으로도 울산 AI DC의 50배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 AI DC 관련 이익도 지속적인 이익체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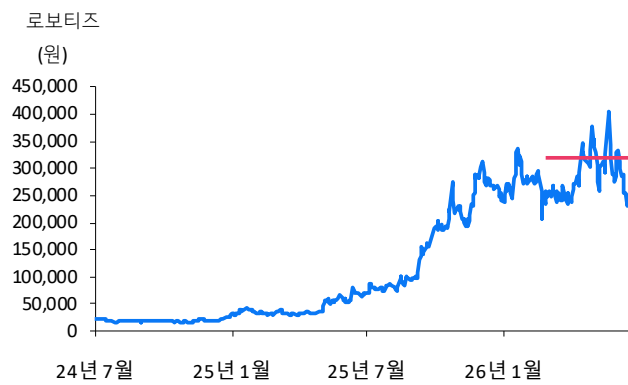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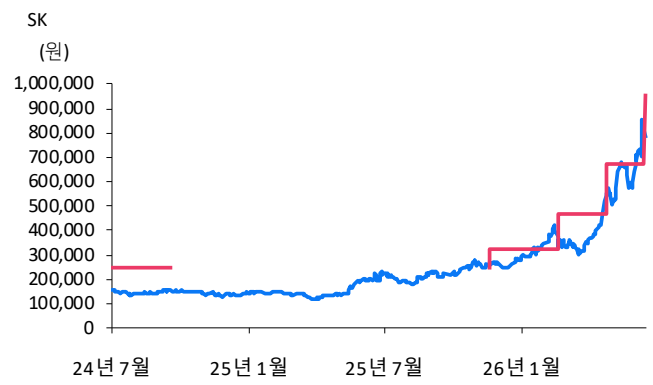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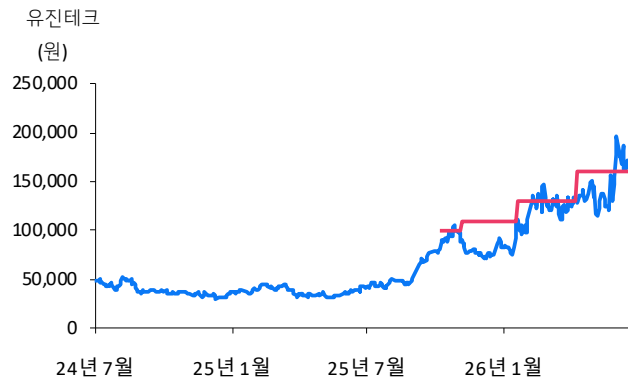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6월 29일 현재 삼성전자와(과)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6월 2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2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2026. 6. 30



2026. 6. 30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삼성전자												
일 자	2024/5/28	9/12	11/1	2025/1/2	8/1	9/23	10/13	10/31	12/8	2026/1/9	1/27	1/3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120000	100000	83000	74000	85000	93000	110000	130000	140000	180000	200000	230000
과리율 (평균)	-34.45	-39.49	-33.92	-21.93	-15.05	-6.95	-10.64	-21.96	-16.54	-18.69	-19.23	-19.75
과리율 (최대or최소)	-26.83	-35.30	-29.28	-1.89	-1.76	1.51	-5.36	-14.54	0.71	-15.39	-18.80	-5.22
일 자	4/7	5/4	6/2									
투자의견	BUY	BUY	BUY									
TP (원)	270000	300000	500000									
과리율 (평균)	-20.25	-3.39										
과리율 (최대or최소)	-16.30	16.33										
SK하이닉스												
일 자	2024/4/8	7/12	9/12	2025/1/24	4/24	6/25	9/23	10/13	10/30	12/8	2026/1/27	1/3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250000	280000	240000	280000	250000	340000	430000	500000	700000	750000	950000	1300000
과리율 (평균)	-18.91	-34.15	-23.78	-30.26	-14.53	-17.52	-14.81	-3.33	-19.05	-11.48	-10.42	-26.68
과리율 (최대or최소)	-3.60	-16.79	-6.04	-21.96	11.40	3.82	-0.47	11.60	-11.43	2.27	-9.37	-10.31
일 자	4/21	6/2										
투자의견	BUY	BUY										
TP (원)	1800000	3500000										
과리율 (평균)	-3.42											
과리율 (최대or최소)	31.28											
에스티아이												
일 자	2026/6/30											
투자의견	Not Rated											
TP (원)	n/a											
과리율 (평균)												
과리율 (최대or최소)												
한양이엔지												
일 자	2026/6/30											
투자의견	Not Rated											
TP (원)	n/a											
과리율 (평균)												
과리율 (최대or최소)												
테스												
일 자	2025/10/20	2026/1/30	4/20	5/14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TP (원)	55000	90000	110000	150000								
과리율 (평균)	-17.44	-23.44	-15.05									
과리율 (최대or최소)	30.91	0.11	11.36									
원익IPS												
일 자	2024/5/30	11/8	2025/5/12	10/20	11/10	2026/1/30	3/12	5/11				
투자의견	BUY	HOLD	HOLD	BUY	BUY	BUY	BUY	BUY				
TP (원)	44000	34000	26000	70000	86000	130000	150000	170000				
과리율 (평균)	-23.94	-30.32	30.97	-9.08	-19.30	-9.95	-19.61					
과리율 (최대or최소)	-8.86	-18.24	119.62	2.43	29.07	6.00	-10.20					
유진테크												
일 자	2025/10/20	11/17	2026/1/30	4/2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TP (원)	100000	110000	130000	160000								
과리율 (평균)	-4.02	-26.62	-5.83									
과리율 (최대or최소)	5.70	-2.27	13.85									
SK												
일 자	2024/3/28	2025/12/2	2026/3/5	5/8	6/3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TP (원)	250000	326000	470000	670,000	950,000							

2026. 6. 30

괴리율 (평균)	-37.75	-7.54	-22.38	-4.53
괴리율 (최대or최소)	-24.56	29.60	15.53	28.06

로보티즈

일 자	2026/3/11
투자의견	BUY
TP (원)	320000
괴리율 (평균)	
괴리율 (최대or최소)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15% 내외
-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산업

-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 NEUTRAL(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6.03.31 기준
매수(85.2%)·중립(14.8%)·매도(0%)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